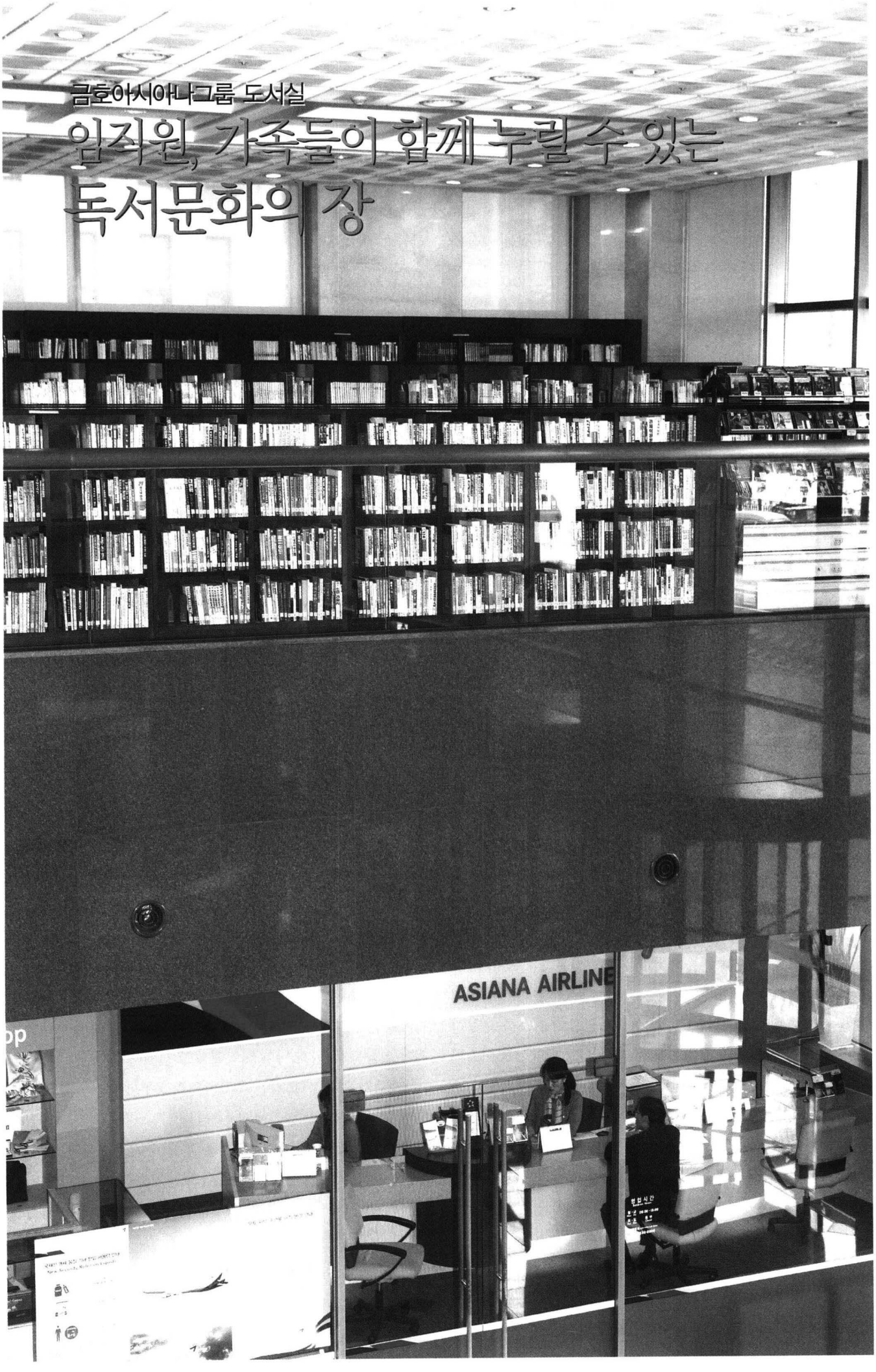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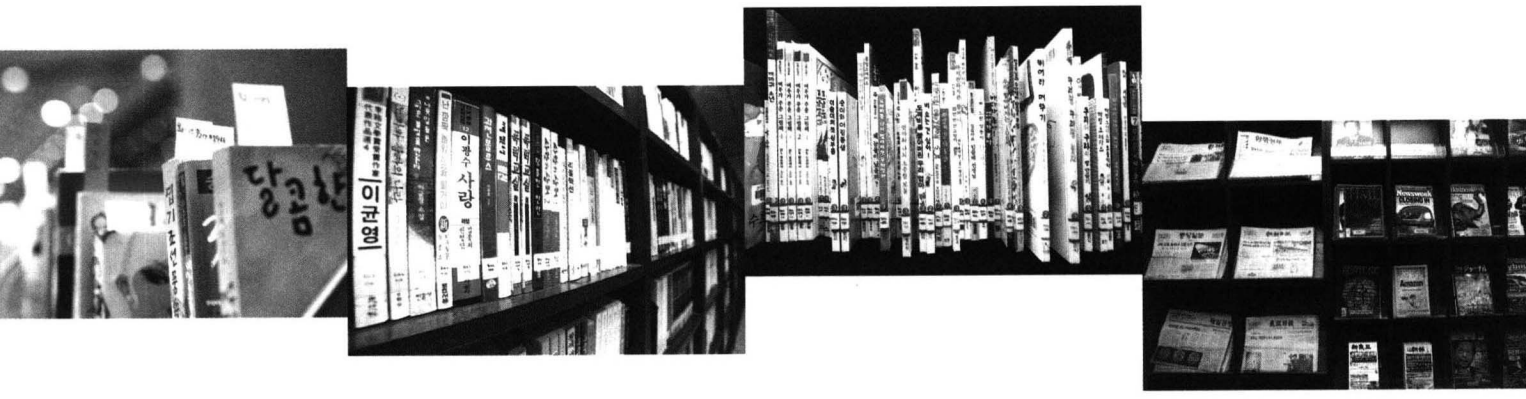


금호아시아나그룹 도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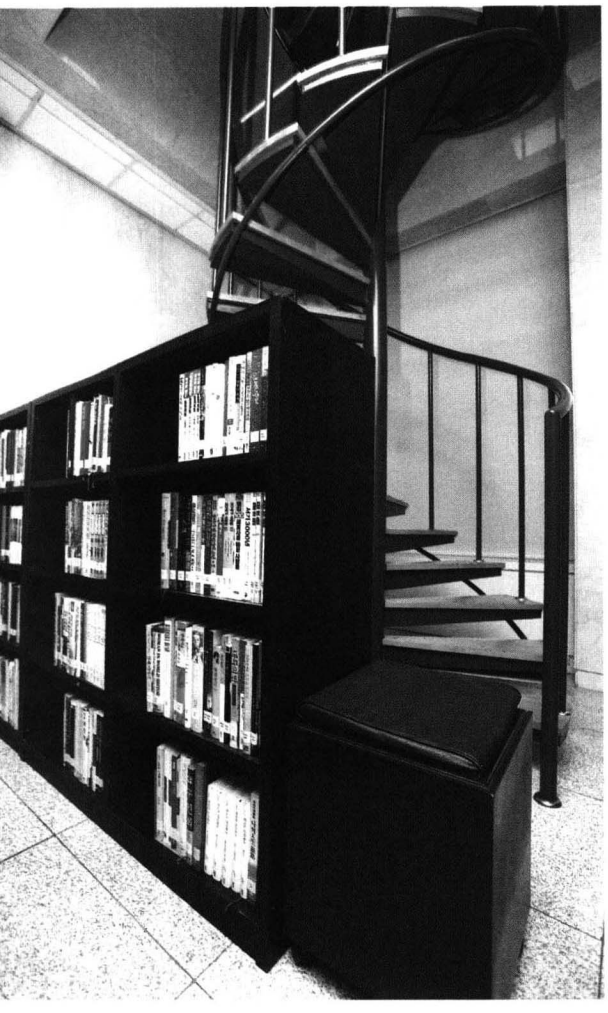
임직원, 가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독서문화의 장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에 들어서자 2층에 마련된 도서실 서가가 눈에 들어온다.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도서실이 훤하게 오픈되어 있어 도서관에 온 듯 하다. 임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수월하게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장점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명예회장 박성용 회장의 제안으로 2005년 2월 본사 사옥에 자율문고를 마련한 적이 있다.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 옆 책장에 책이 진열됐고, 일반인들도 마음껏 빌려갈 수 있도록 했었다. 지금은 외부인은 빌려갈 수는 없지만 임직원과 관계된 사람이라면 조용히 들어와 책을 펼쳐 봐도 된다. 현재 도서실에는 39,000여 권의 책, 3,500여 개의 음반, 1,000여 개의 DVD가 소장돼 있다.

도서실에 들어서자 《부의 미래》《공중그네》《인생수업》《30대 여자 리더에 도전하라》《나만의 스타일 여행》《아내가 결혼했다》《하얀거탑》《써바이벌 과학학습 만화》《30대 여자가 알아야 할 돈관리법》《로마인 이야기》《이런 집에 살고 집다》《걸》《달콤한 나의 도시》 등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책들이 먼저 반겨준다.



신간도서만 구분해 놓은 서가에는 인문, 경제경영, 소설 등 분야를 나누어 구비해 놓았다. 도서실 2층에서 똬리를 틀고 있는 철계단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가면 고서점을 방불케하는 서가에 몸이 반사적으로 움츠려진다. 철학, 소설, 인문서 등이 가지런하게 꽂혀 있는 서가를 둘러보면, 코를 쾌쾌하게 만드는 책 냄새가 역겹기보다 그리웠던 고향 같이 느껴진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은은한 전조등을 쬐고 있는 서가의 책들은 그렇게 시간을 따라 익어가고 있었다. 사방에 책으로 파묻힌 기자는 왠지 2층으로 올라가기가 더더욱 싫어졌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많은 책들과 조우하고 싶었다.

도서실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한다. 아동도서가 5,500권 소장돼 있어 아이가 있는 임직원들이 빌려가는 책도 상당수다. 직원들은 리더십, 인간관계, 경제경영서 등 업무와 밀접한 책을 많이 대출해간다. 특히 경제경영서의 경우에는 딱딱한 전문서보다는 쉽게 풀어쓴 경영학 책이나 에세이 형식의 경영서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와인을 주제로 한 책이나 여행관련 책도 큰 인기를 누린다.

취재_정윤희 기자 | 사진_정화영 객원기자